

# 김지사 “내년 ‘더 위대한 전남도’ 위해 힘 모으자”

### 통합대학 국립의대 추진 합의 등 성과 바탕 대도약 강조 정부 조기 추경·긴급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 역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4일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고 최근 주요 경제지표도 중위권 수준에 올랐다. 내년에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더 위대한 전남도’를 향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올해 마지막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실·국장별 도정 성과를 일일이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도정 성과는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 합의 ▲1조4천억원 규모 여수 묘도 LNG터미널 착공 ▲2024-2026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버벌구 등 농업재해 1천800억원 인정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추진 발표 및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전라선 고속화 철도사업 예타 대상 선정

▲강진-완도 고속도로 예타 통과 등이다.

전남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경제지표에서도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의 가구소득은 6천600만원으로 전국 8위, 1인당 개인소득은 2천375만원으로 9위, 지역내총생산(GRDP) 96조2천억원으로 8위에 올랐다.

김 지사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준 결과, 과거 최하위 수준에 비교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도민이 체감하지 못 할 수도 있다”며 “특히 여수 국가산단 가동률이 70%대로 떨어지는 등 최근 경제가 어려워 현재의 상황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주요 경제지표가 좋아졌음에도 역외유출은 3조원대로 심각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4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하다. 수도권 역외유입이 70여조원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큰 문제”라며 “통계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를 고민해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전남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문화·전통 유산이 풍부하고

이에 따른 발전 잠재력도 충분하다”며 “2025년에는 분야·실국별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비전을 세워 ‘더 위대한 전남도’로의 대도약을 실현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긴급 민생 대책과 관련, 김 지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광업, 농어민, 취약계층 등을 위해 23개 사업에 1천185억원을 투입키로 한 지원책을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분야별로 잘 안내하고 신속하게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라”며 “불황이 지속되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솔선해 소비활동 뿐만 아니라, 해돋이·해맞이 등 연말 관광자 홍보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최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부 조기 추경 필요성과 경기 부양을 위한 긴급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비상사국이니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정부가 빨리 해야 한다”며 “아직 정부 추경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았지만 미리 대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 주요 사업을 적극 설명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자”고 역설했다.

/김재정 기자

## 姜시장, 구미 콘서트 취소당한 이승환에 “광주서 열자”

### 이승환 “민주성지 광주 공연 기대” 화답...市·기획사 협의중

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돌연 취소한 가운데 강시장 광주시장이 광주 개최를 제안해 관심을 모은다. 이에 이승환은 “민주성지 광주 공연을 기대한다”며 즉각 화답했다.

강 시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미시가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럼 광주에서 합

시다. 이승환 가수를 광주로 초대한다”고 적었다.

강 시장은 “계명이 얼마나 황당하고 엉터리였으면 K-pop을 응원하는 청소년들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응원봉을 들고 길거리를 나섰겠는가”라며 “우리를 지지하지 않게 해주는 에너지, 바로 K-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감사하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의 공연을 기대한다”고 강시장의 초대에 화답했다.

이승환은 또 “제가 매니저가 없는 관계로 협력사인 음향회사 대표님께서 연락 드릴 것 같다”고 밝혀 광주 콘서트 성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광주시는 이날 오후 음향회사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기획사와 광주콘서트 개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구미시는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 “구미시는 서약서 작성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제 공연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변은진 기자

## 내년 전남 학교급식 끼니당 4천613원 확정

### 도, 지원단가 400원 인상...총 1천651억 투입

전남도는 25일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위해 2025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단가를 학생 1식당 전년보다 400원 오른 평균 4천613원으로 확정, 총 1천651억원(교육청 747억원 포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특수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2천199교에 재학 중인 21만9천여명이다. 총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110억원 증가했다.

전남도와 시·군의 지원 금액은 904억원이며 분담률은 전체 급식의 5%로 전국 지자체 중 경기, 충북,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 /김재정 기자

**도민평가단 2기 활동 본격화**

전남도는 25일 “민선 8기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평가단 2기를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8월부터 관련 기관에서 추천 받은 22명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 70명 등 총 92명의 도민평가단 2기를 선발했다. 평가단은 개별 위원의 선호와 경력에 따라 기획행정환경, 관광문화 등 7개 분과위원회로 배정됐다.

2기 도민평가단은 최근 평가단과 관계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정기회를 열어 임원(단장·부단장·분과위원장) 선출, 민선 8기 공약 추진상황 보고, 공약 실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양시원 기자

## 광주 50개 기업·기관 ‘가족친화인증’ 획득

### 여가부, 신규 26곳 등 인증 부여...각종 인센티브 제공

광주시는 25일 “쥬에스오에스랩·한국학호남진흥원 등 광주지역 50개 기업·기관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인증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탈락한다.

조건을 유지할 경우 유효 기간이 2년 연장되며 이후부터는 3년마다 재인증

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은 올해까지 총 140곳(중소기업 102곳, 대기업 3곳, 공공기관 35곳)으로 늘었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기관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서 부여하는 다양한 특전(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는 인증 기업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 구매 적격심사 가점 부여, 은행 대출금

리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세청과 협업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인증 기업과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광주 시도 인증 기업·기관에 총 18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사업 지원, 가족친화경영 지원금 심사 우선 지원, 광주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이다.

/변은진 기자

##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